

옥수수



학교 화단 텃밭의 통일옥수수

세계 3대 작물은 밀, 벼, 옥수수입니다. 벼과에 속하는 1년생인 옥수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한 알을 심어 몇 백 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키우기도 비교적 쉬우며, 병충해도 적어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식량작물이 되어왔습니다.

비료가 적은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충분한 비료를 주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수확 후에 옥수수 줄기를 잘라 고랑에 넣으면 자연적으로 비료가 되며, 가축의 사료로도 옥수수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품종의 찰옥수수가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텃밭을 하는 곳에서는 간식용으로 즐겨 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식용보다는 가축의 사료용 풋옥수수가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많은 산업의 중요한 기초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기 좋은 환경

옥수수는 땅을 크게 가리지 않아서 아무 곳이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 공기가 잘 통하고 물 빠짐이 좋은 곳이 적합합니다. 특히 아침부터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퇴비도 적당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를 따고 난 뒤에 줄기는 잘라서 땅에 늘어놓아 자연적으로 퇴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텃밭만들기>를 찾아보세요.

옥수수의 종류

옥수수는 크게 메옥수수와 찰옥수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옥수수는 찰옥수수와 달리 찧기가 없어서 동물의 사료나 약용, 기름, 조미료, 화장품, 과자 등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먹는 옥수수는 옥수수가 완전히 익기 전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랑한 풋옥수수입니다. 간식으로 먹는 풋



찰옥수수

옥수수는 찰옥수수, 단옥수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재래종, 굳음씨 형태의 찰옥수수를 주로 재배하여 먹었기 때문에 입맛도 찰옥수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팔고 있는 찰옥수수는 종자 회사에서 재래종을 개량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종 옥수수는 팔기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집에서 먹기 위해 계속 심어온 것이 대부분이라 키우고 있는 곳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찰옥수수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찰옥수수 유전자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찰옥수수는 저 칼로리 식품으로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 토코페롤(비타민 E)이 많이 들어 있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흰색이었으나 최근에는 안토시아닌 함량과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옥수수와 자색과 노랑색 등이 혼합된 알록이옥수수 등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통일옥수수도 찰옥수수입니다.



단옥수수

단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에 비하여 단맛이 좀 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로 찌서 먹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통조림으로 가공하여 팔고 있습니다. 단옥수수는 초당옥수수라는 이름으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에는 메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뇨작용에 효능이 높아 옛부터 신장병과 당뇨병에 민간약제로도 쓰였습니다. 지금도 옥수수수염차로 만들어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줄기와 잎은 소 등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등 옥수수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익한 식량자원입니다.